

야빠의 문안

필자의 제자 중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위를 받고 그 나라(인도네시아)에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캐리어우먼(대학교수)으로서 당당하고도 자랑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당하고 자랑스럽다’는 의미는 그 또한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지난날 그 학생과 지냈던 생활을 떠올려 볼 요량이면, 한결같이 얼굴에 웃음만 가득 머금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 지면에 한 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학생은 항상 얼굴이 밝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 붉히는 모습이나 화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과제(課題)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필자가 심하게 나무랄 때에도 그 학생은 변함없이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누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도 했지만 어떤 때는 이러한 모습에 되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나무라는데 웃고 있으니 누군들 안 그러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미소 속에서 필자는 학생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웃음인지, 정말로 기뻐서 웃는

웃음인지, 한국음식이 맛있어서 웃는 웃음인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웃음인지, 웃지 못 할 상황이었지만 남을 배려하고자 웃는 웃음인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필자의 독심술(讀心術)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 보니 ‘척하면 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매일 같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5개국어(중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뛰어난 자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남들보다 일찍 학위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은 주말이나 주일에는 별반 하릴없이 빈둥빈둥 소일하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숙사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필자는 조심스럽게 교회로 그 학생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필자의 속내에는 교회인도를 목적에 두고 있었지만, 그 학생의 관심은 영문(營門) 밖의 뒷전이고 영화나, 맛있는 점심이나 저녁, 그리고 쇼핑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필자가 이 학생에게 던졌던 미끼는 교회가 아니었고 영화, 음식, 쇼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교회인도를 위한 미끼였습니다. 곧 미끼를 물어야 낚아서 교회에 가둘 수 있지 않겠냐는 심산이었지요. 그렇지만 매번 미끼가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예배가 파하면 그 즉시 돌려보낸 적도 적지 않았으니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예배가 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이후로 모든 것을, 곧 미끼를 거부했습니다. 일요일마다 갈 곳이 있다는 핑계로 말합니다. 이 학생을 교회에 나오게 한 필자의 목적은 이미 채운 지

오래고 또한 미끼에 투입되는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나름 그 핑계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자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곧 “이 학생을 시키신 대로 데리고 나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궁금했습니다. 이 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몇 주가 지난 때 필자는 그 학생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생은 다른 곳도 아닌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새신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있었던 것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후로 또 다시 주일 오후 영어권 선교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중국어로 영어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자의 기도 응답해 주셨음은 둘째 치고 필자는 그 즉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몰라라 내동댕이쳐 두었던 씻을 수 없는 죄를 기억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디오피아의 신하 간다게(Candace)를 떠올렸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홀로 외롭게 이사야(Isaiah)서를 접했던 간다게를 말합니다. 신약에서의 말씀은 이 학생과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나 자기를 가리킴이나 타인을 가리킴이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롬 08:27-39)

이후 이 학생은 필자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학생이 그것도 그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청출어람(靑出於藍)이 아니었을까요?

“교수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궁금하기만 했는데, 통역을 통해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치게 하신 것을 보면 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면 학원에 값비싼 수강료 내고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강료는커녕 말씀까지 공짜로 배우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같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선물’은 ‘감사’고 ‘공짜’고 ‘기쁨’이 아닌가 생각되요.”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그 학생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얼굴은 그다지 남 앞에 내세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웃음은 분명 천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일날 이 학생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단 한 번도 주일예배를 거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불현 듯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습니다. 주일하루 내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도 꺼져있고, 도통 연락도 되지 않고, 사고를 당했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야말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음날 부리나케 그 학생을 찾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를 따져보려고 말입니다.

그때 필자 앞에 선 그 학생의 얼굴에는 지금까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았던 웃음 띤 미소는 어디에도 오간 데가 없었습니다. 하루 새 얼굴도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요즈음 저는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어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흰 옷을 입은 귀신이 저를 밤새 짓눌러 못살게 굴고 있거든요.”

“지난 토요일 밤에 그 귀신이 찾아와 저를 못살게 굴었던 까닭에 몸이 가위에 눌려 교회에 가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사실을 교수님이 아시면 실망해 하실까봐 말씀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 학생의 뜻밖의 말에 필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접하고 또 해결하여야할지 그저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마음으로 그 학생에게 학교 앞 문구점에서 돼지저금통 하나를 사 주었습니다. 가다라(Gadarenes)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주일에 목사님께 이런 사실을 말하고 기도를 받자고 위로하며 다독이는 손길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어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마 08:31-34)

다음 주일 날 필자는 이 학생을 데리고 교역자에게 말한 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자 했습니다. 교회 밖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기다렸지만 끝내 목사님의 호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길가에서 그것도 차들이 오고가며 시끌벅적했던 온갖 소음 속에서 교역자와 우리 둘은 그렇게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이후로 이 학생에게 귀신은 영원히 발붙일 수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 이 학생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본 간다게처럼 말입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이별뿐이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스러운 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필자에게 그때 세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였고 행복이었으며 기쁨이었습니다.

부디 고국에 돌아가서라도 또 다른 신앙의 결실을 맺어 그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것을 소원하며 이를 필자의 마음에 꿰이지 않을 기도의 제목으로 두었습니다. 그때 세례의 광경은 필자가 죽는 날까지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필자는 세례가 끝난 후 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 가지 당부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며, 네 이름만 들어도 어쩔 줄 모르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라도 행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이 되라”

이후 또 다시 교역자를 통해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나름 선교사 파송기도를 받고자 말입니다. 이 땅위에서 그도 마지막 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펜스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음은 필자 또한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시 반복되는 글귀입니다. 교회 밖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기다렸지만 끝내 목사님의 호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길가에서 그것도 차들이 오고가며 시끌벅적했던 온갖 소음 속에서 교역자와 우리 둘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신자와의 면담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장로님과의 면담 때문이었다는 사실 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밖의 이유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윽고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런 학위모를 쓴 이 학생의 얼굴은 뜻밖이었습니다. 필자가 본 두 번째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말하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다. 다시 못 볼 것 같은 교수님, 다시 못 볼 것 같은 정든 교정, 다시 못 볼 것 같은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다시 꾸릴 수 없는 지난 기억과 추억들 때문이었음은 다시 말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서로의 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필자는 서로 함께 사진 몇 장을 찍어두고 이내 필자 연구실 자리를 내주면서 그 앞에서 클라리넷 한 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호흡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기어코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학생 또한 흐르는 눈물 때문에 심장박동이 가빠왔지만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고 있었으나 미소 띤 함박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울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느끼고 경험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연주했던 찬송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큰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To God be the glory, great things He hath done,

이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So loved He the world that He gave us His Son,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Who yielded His life our redemption to win,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And opened the life-gate that all may go in.

우리주 높이세 귀한 말씀듣고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우리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615장)

And give Him the glory; great things He hath done.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딸, 그 자랑스러운 필자의 제자 이름이 다름
아닌 ‘야삐 크리스티나’(Yappi Christina)입니다. 이 글의 제목을 ‘야삐의
문안(問安)’이라고 걸어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삐’는 필자에게 너무도 큰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하신 사랑을 다시금 울곧게 새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야삐’가
주고 간 ‘선물’에는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후로도 간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야삐의

말대로 그것은 ‘공짜’였고, ‘감사’였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빠’를 포함하여 이 모두를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장례집도를 마다하고 그것도 부교역자에게 일임해 두고 사우나에 처박혀 있었던 목회자, 환우의 심방을 마다하고 낚시터로 교역자 연수를 떠난 목회자 그것도 낚시는 고사하고 그곳에서 고스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목회자, 장로님들의 사직을 그것도 하대(下待)로 깔아뭉개면서 강요했던 목회자, 위임을 위해 교회에 제출했던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목회자, 교회 내에서 자신의 대학동창회를 구성했던 목회자의 사모, 자진 퇴역을 빌미삼아 거액을 요구했던 목회자 그것도 교회를 담보물로 삼아 은행대출을 강요했던 목회자, 약정현금을 내지 않는다면 사회법에 고소한 목회자와 장로들.

우리 ‘야빠’가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야빠’ 앞에 필자가 무어라고 변명하였어야 할까요? 그도 신앙의 불모국 인도네시아로 떠났기 망정이지 이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듣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마다 귀신들려 괴로워하다가 이를 붙잡아 달라고 진정으로 호소했음에도, 개인선교사로 그것도 혈혈단신으로 그의 고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비장한 마음으로 파송기도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끝내 보여주지 않았던 목회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야빠’와의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무시로 메일과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고 있음이 그것입니

다. 좀 지난 최근 그것도 스승의 날이라고 필자에게 보내준 페이스북의 내용입니다.

“잊을 수 없는 우리 교수님 사은(師恩)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와 교수님을 이 땅위에 있게 하시고 호흡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려요. 무엇보다도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려요.”

“새로 태어난 우리 아들 아드리안(Adrian)이 점점 커갈수록 교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 말을 했더니 내심 기분 나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요. 뭐. 사실이 사실인데.”

“여름방학이 기다려져요. 이곳에 오실 날을 손꼽아 보기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늘 제 생각 많이 해주세요.”

필자에게 ‘야빠’는 또 다시 신앙적으로도 청춘어람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리보고 저리보아도 실로 자랑스럽기 그지 없는 하나님의 딸이 아닐 수 없게 말입니다. 한때 필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사랑의 흔적이자 증거였습니다. 야빠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두지 않고 잊고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한국의 우리교회 목사님에게도 꼭 안부전해 주세요.”